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의 복지 증진 등 농정목표 달성에 주력키로 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10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미래성장'과 수출 산업화를 견인하고 6차산업화 추진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가루 산업 활성화,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 발농업 기계화, 곤충이용 식품 및 의약 소재 개발 등 산업화기술 5과제를 'Top 융복합프로젝트'로 설정해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의 복지 증진 등 농정목표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2017 업무계획 발표 첨단 융복합기술 씨앗으로 농산업 지속성장 견인

농진청은 밀가루 대체 쌀가루 이용 촉진을 위해 건식제분용 전용품종 육성과 제분기, 가공식품 개발 및 원료 곡 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팜 핵심기기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록을 위한 국산기술과 생육관리 SW를 개발해 해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품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 프리미엄 국산사료와 용품 개발 및 생애 주기별 질병예방연구와 동물 매개 치유모델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농업 기계화에 따라 농기계 적합품종육성과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경량형·고성능 농기계 개발에 기술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풀무치, 왕자거리, 수벌번데기 등 식용곤충 후보종의 식용원료 등록 추진 및 환자식 등 고단백 영양균형 식품 시제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미래성장산업화/경쟁력 제고/수출 및 글로벌 협력/농업·농촌 활력 증진' 등 4대 분야 8개 중점 추진 과제에 역량을 집중키

로 했다.

또한, 농진청은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유관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운영체계 혁신과 부처·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현장과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올해도 개방 확대,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가치에 첨단 과학기술을 융복합해 농산업을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치유농업 활성화와 농(農)-의(醫) 손잡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일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김태환 농업 축산경제대표 전북 방문

시 방역추진사항 점검

김태환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가 10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농업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지역 방역추진사항을 점검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임직원들의 전사적인 방역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방문해 “AI 확산방지 및 종식을 위해 차단방역 등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 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AI피러

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농협은 지난달 16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

또한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가금 농가 대상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금농가에 연락해 소독확인 및 함께 농장의 애로사항, 특이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가금류 소비가 줄어들어 가금 농가의 2차 피해가 우려 되는 만큼 가금류를 홍보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닭과 오리 메뉴로 소비촉진에 동참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최초 익산인화 행복주택 청약접수 시작

사회초년생 등 지역주민 관심 고조... 시세 60~80% 저렴한 임대조건 강점

전북지역 최초 익산인화 행복주택이 12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LH공사는 2015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전체 사업부지 2만 749㎡ 중 코레일부지 5,641㎡에 대한 향후 50년간 사용승낙을 득하고 지난해 공사착공해 현재 건축공정이 정상추진중에 있고, 올 12월 적기입주에 대비해 진도도, 조경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이 쇄도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주변 고령자분들도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익산인화 행복주택의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이 큰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공공임대 등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학생 등 젊은층 선호수요를 감안해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다목적 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더불어 전용 16㎡형 주택에는 빌트인 책상, 가스쿠팡, 냉장고도 설치될 예정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계층별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 등 젊은 세대에 공급물량의 80%를,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저급여수급자에게는 공급물량의 20%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전북분부는 익산인화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게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LH 익산인화 건설사업소에 상담안내원을 주말 상근없이 배치해 상담 및 접수 지원을 제공한다.

LH는 지자체와 상생하는 협업체원에서 공급대 형성 및 익산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관할 읍·면·동장 30여명을 대상으로 10일 익산시청에서 설명회도 개최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면대

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익산인화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는 익산시(연접지역 포함) 소재 대학에 재학(입·복학 예정자 포함)중이거나 소득 활동중인자, 노령자 등 계층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자로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청약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만65세이상 고령자 등을 위해 LH 전북지역본부, LH 익산인화건설사업소, LH 익산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상담·접수·서류제출·계약 업무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중진공, 도내 중기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와 전북 서부지부는 도내 시설투자·고용창출·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예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업력 7년미만 중·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장 매입·건축·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과 창업소요 비용·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해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이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장 매입·건축·기계설비 구입자금이며, 시설자금 승인 시 초기가동비로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업체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1년 동안 고용인원 1명당 0.1%(최대 2%까지)의 금리를 우대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중진공 전북본부(063-210-9800) 또는 전북서부지부(063-460-9800)에서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설 자금’ 100억 지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중기청,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실시

전북중소기업청은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해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제품개선 사업과 공정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9개월 동안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선, 수출역량 보유기업, 고용성과 창출기업, 성과 공유기업을 우대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가점 부분을 확대해 조선 및 기자재 생산 기업, 수출기업화 유망 내수기업, 특색화고 채용 협약기업, 여성 기업에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전북중기청 정영택 청장은 “제품개

선, 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야간조명 점등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일 본부 건물 앞마당에서 조형물 야간 조명 점등식을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전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외빈들이 참석한 이번 야간조명 점등행사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주시의 야경을 보다 밝고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